커뮤니티를 향한 나눔지
News Letter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시민참여센터 이민자보호법률대책위
연락처: 646-450-8603



<제 87 호> 2025 년 10 월 31 일

#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제 8 회 연례 심포지엄 & 기금 마련 콘서트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

사랑하는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자매교회와 협력 교회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KASCN)가 주최하는 제 8 회 연례 심포지엄과 기금 마련 콘서트가 오는 11 월 6 일 목요일 오후 2 시와 7 시에 각각, 리틀넥에 소재한 친구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이라는 주제로, 최근 강화되는 반이민 정책과 이민집행에 대한 한인사회의 대응을 중심으로 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행사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시: 2025 년 11 월 6 일 (목) 오후 2 시 – 9 시 30 분

**장소:** 친구교회 (Friends Church)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 2025 년 심포지엄 (2PM)

이번 2025 년 심포지엄에는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뉴욕지부 Donna Lieberman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참여하며, 뉴욕한인회를 비롯한 20 여 주요 한인 교계 및 한인 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민자 보호와 권익 옹호를 위한 기조연설를 듣고, 한인커뮤니티의 통합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민자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도 연대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교회와 한인 커뮤니티가 다시 '피난처(Sanctuary)'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 기금 마련 콘서트 (7PM)

저녁에는 ACLU 및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기금 마련 콘서트 "Concert for a Cause"가 열립니다. 공연전 ACLU 에 기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공연에 테너 윤두현, 오보이스트 이정석, 앙상블 Amusez, 재즈보컬 전수희, 그리고 Young Acoustic Band 가 함께 무대에 오릅니다.

음악을 통해 이민자 공동체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특별한 밤이 될 것입니다.

## 참여와 연대 요청

이 행사는 한인 교회와 단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 연대의 자리입니다.
각 교회와 성도님들의 참여와 관심이, 이민자 공동체를 지탱하는 큰 힘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자매교회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 각 교회 예배나 주보, 단체 채널을 통해 본 행사를 홍보해주시고,
- 교인들과 함께 저녁 7 시 예배 및 콘서트에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교회별로 단체 참석이 가능하신 경우, 연락주시면 단체 공연 티켓과 좌석을 배정해드립니다.

## 문의 및 연락처

- **조원태 목사** (KASCN NY 위원장) ☎ 718-309-6980
- **이준규 목사** (KASCN NJ 위원장) ☎ 917-348-4456
- **최영수 변호사** (심포지엄 & 콘서트 준비위원장) ☎ 646-872-5512
- 이메일: sanctuarychurchny@gmail.com
- 웹사이트: www.KASCN.ORG.org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교회가 피난처가 되고, 공동체가 희망이 되게 하자"는 사명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참여가 이 길을 더욱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관련 신문기사]**

Amen-Net: https://usaamen.net/bbs/board.php?bo_table=data&wr_id=14404
The Korea Daily: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51029212906508
Kairos Times:
https://kairostimes.us/bbs/board.php?bo_table=bod1_news1&wr_id=778
News & Joy:
https://www.newsnjoy.us/news/articleView.html?idxno=25609
K-Good News:
https://k-goodnews.net/%ec%9d%b4%eb%b3%b4%ea%b5%90-%eb%89%b4%ec%9a%95%ed%95%9c%ec%9d%b8%ed%9a%8c-%ec%9d%b4%eb%af%bc%ec%9e%90%eb%b3%b4%ed%98%b8-%ec%9c%84%ed%95%b4-%ec%97%b0%eb%8c%80-%ea%b0%95%ed%99%94-2025/

이민자보호교회 뉴욕 위원장 조원태 목사
이민자보호교회 뉴저지 위원장 이준규 목사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Korean American Sanctuary Churches Network**

**www.KASCN.Org**




뉴욕한인회
The Korean American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이민자보호교회
Sanctuary Church
2025
심포지엄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 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
일시
Thurs., Nov. 6, 2025
장소
친구교회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2:00 PM ACLU 기조 강연과 질의 응답
3:30 PM 한인단체 연석회의
5:30 PM 저녁 식사
7:00 PM 기금마련 음악회
협력단체 뉴욕가정상담소,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뉴욕지구한인목사회,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뉴욕청소년센터, 뉴욕한인여선교회연합회,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한인목사회,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민권센터,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퀸즈 YWCA,
한인단체장연합회, 함께하는 교육, KCMB-TV, 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그외 뉴욕/뉴저지 여러 단체들과 동포들

김동석 그 이름만으로도 믿음이 간다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변호사 1.866-994-4949 24Hr 646.808.7375

등산화 www.shoesvillage.com 45-22 162 St, 우리상 (718)762-1990

도담 통증병원 교통사고/상해사고/각종사고 메디케이드,메디케어 직장보험등,각종 보험취급 3622 Parsons Blvd, Flushing NY 917-563-5820

최대보상 한인 최초 상해 변호사 김동민 변호사 (201)741-1114

트럭 공인회계사 T.718-888-2727 159-15 Northern Blvd. #111 Flushing

젊은신문 앞서가는신문

뉴욕일보

Friday, October 31, 2025 <제6153호> www.newyorkilbo.com THE KOREAN NEW YORK DAILY 제보 · 문의 대표전화 (718) 939-0900 2025년 10월 31일 금요일

# 강화된 이민 단속에 한인 단체 · 교회들 연대 대응한다

## 11월 6일 친구교에서 심포지엄 후 시민자유연맹 · 한인커뮤니티 기금 마련 콘서트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이하, 이보교)는 뉴욕한인회와 공동으로 11월 6일(목) 오후 2시, 친구교회(담임 빈상석 목사 / 252-00 Horace Harding Expy, Little Neck, NY)에서 2025년 심포지엄과 ACLU(시민자유연맹) 및 한인 커뮤니티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한다.

주최측은 "이번 행사의 주제는 '강화된 이민 단속 시대 한인교회와 단체들의 연대와 대응'이며, 연약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확장된 연대로 커다란 방파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혼자 열 걸음을 걷는 것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강하다는 생각으로 교회와 사회가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참여 단체로는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 회원 교회들과 뉴욕한인회, 뉴욕교협, 뉴욕목사회, 뉴저지교협, 뉴저지목사회, 뉴욕지역한인회연합회, 대뉴욕한인경제단체협의회, 한인단체장연합회,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민권센터, UMC 뉴욕연회 한인코커스, 뉴욕가정상담소, 함께하는 교육, 뉴욕청소년센터, KCMB TV 등 그 외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들과 동포들이 함께 한다.




이민자보호교회네트워크는 뉴욕한인회와 공동으로 11월 6일(목) 오후 2시, 리틀넥에 있는 친구교회에서 2025년 심포지엄과 ACLU(시민자유연맹) 및 한인 커뮤니티 기금 마련 콘서트를 개최한다. [포스터 제공=이보교]

주최측은 어려운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와 한인 단체들이 연대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동포사회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의미를 갖는다.

참여단체들은 2025 심포지엄 플랫폼을 활용해 이후 공동대응기구를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움의 행사 준비위원장 최영수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위기 속에서 한인 커뮤니티는 서로의 손을 잡고 연대와 협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협력한다면, 반이민 파도 역시 함께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수 변호사 또 "ACLU와의 협력은 한인 커뮤니티가 사회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는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이번 심포지엄이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희망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ACLU는 1920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단체이며, 주로 소송을 통해 "미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이민자를 보호하는 단체이다.

이보교는 이번 심포지엄과 기금마련 콘서트를 통해 ACLU(미국시민자유연맹)와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기금을 마련할 예정이다. ACLU에 기금을 전달함으로써 이민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와 한인사회가 친구가 되며, 더불어 ACLU처럼 이민자를 위해 애쓰는 단체들을 알 수 있는 배움과 감사의 기회를 갖게 되리라 기대한다.

◆주요 프로그램

심포지엄은 뉴욕 · 뉴저지 · 시카고 등 전국 200여 개 한인교회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민자 보호와 커뮤니티 대응 전략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특히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의 Donna Lieberman 대표가 기조연설자로 참석하여, 시민의 자유와 이민자 권익을 지키기 위한 ACLU의 역할과 한인사회와의 연대 가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금마련 콘서트 & ACLU 기금 전달식

심포지엄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기금 마련 Benefit Concert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음악을 통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출연진(Performers)은 △이정석(Oboe)/피아노 서린 △윤두현(Tenor)/피아노 이정현 △아뮤제 앙상블(Amusez Ensemble) 합창단 △전수희(Jazz Vocal) △영 어쿠스틱 밴드(Young Acoustic Band, YAB) 이다.

콘서트는 클래식, 재즈, 락을 넘나드는 다채로운 무대로 꾸며지며, 마지막에는 전 출연진과 관객이 함께 '상록수'를 부르며 연대의 의미를 나눈다.

이보교는 "해마다 사회를 향한 교회의 메시지를 심포지엄을 통해 선포해 왔다. 본래 8회를 맞이하는 심포지엄의 타이틀을 2025 심포지엄이라는 타이틀로 바꾸어, 선한 일에 모든 이들과 연대하여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다"라는 한 시인의 노래를 실천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본 행사는 한인 이민자 공동체의 연대와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이다. 커뮤니티 리더들과 한인들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뉴욕 · 뉴저지 사고 상해 전문 나폴리 스콜릭 로펌 파트너 정준호 변호사 917-300-0060 24시간 상담 가능 Attorney Advertising Prior results do not guarantee a similar outcome.

YES! SBA LOAN New Millennium BANK (201)585-6090 Steven J. Chang

오늘의 환율과 날씨

| | 10월 31일(금) | 11월 1일(토) | 11월 2일(일) |
|---|---|---|---|
| | 최고 56도 최저 48도 | 최고 58도 최저 44도 | 최고 60도 최저 45도 |

오늘의 환율 / 10월 31일 오후 12시 기준(한국시각)

| 매매 기준율 | 현 찰 | | 송 금 | | T/C | 외화수표 |
|---|---|---|---|---|---|---|
| | 살 때 | 팔 때 | 보낼 때 | 받을 때 | 살 때 | 팔 때 |
| | 1,452.99 | 1,403.01 | 1,441.90 | 1,414.10 | N/A | N/A |




심포지엄에 이어 오후 7시부터 열리는 기금 마련 Benefit Concert에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음악을 통해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포스터 제공=이보교]

# "한인 유권자 투표율 20~30%선, 美 평균보다 10%이상 낮다"

## 시민참여센터, 11월4일 본선거 앞서 유권자 분석 발표 "이번엔 50%선 넘어보자"

시민참여센터(대표 김동찬_은 11월 4일(화) 본선거일을 30일 플러싱에 있는 뉴욕 시민참여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5년 본선거 안내서'를 발표했다.

시민참여센터는 "2025년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한 본선거가 11월 4일(화)이고 10월 25일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다. 뉴욕과 뉴저지 모두 2023년 본선거 보다는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는 뉴욕에서 2023년도에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인하여 시의원들 선거만 있었지만 올해는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5개 보로장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뉴저지도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는 주의 상하원 선거와 카운티 타운 선거만 진행이 되었지만 2025년에는 주지사 선거를 함께 하기 때문에 2023년 투표율 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ㅇ느들의 많은 투표참요을 당부했다.

시민참여센터는 "모든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은 미국 평균 투표율 보다 10% 이상 낮다는 것. 소수계로서 오히려 투표 참여율이 더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다는 것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3년 동안 선거에서 한인 유권자수는 조금씩 늘어났다. 역시 투표참여 숫자도 전체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참여도가 높았다. 한인들의 정당 가입은 민주당이 약 54% 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이 무당층이 약 30%, 공화당이 약 14%로 제일 낮다."고 밝혔다.

2022년 중간선거에서 등록유권자 대비 투표참여율은 공화당이 38.96% 무당층이 22.32% 민주당이 36.55%로 공화당 소속 한인들의 참여율이 높았다.

▶3면으로 계속